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호 [루게 제22956호] 주체99(2010)년 1월 4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시여 새해전투에 돌입한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박남기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조선인민군 대장 현철해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새해벽두에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발전소의 건설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충성한 기세로 새해전투에 돌입한 발전소의 건설자들은 첫날부터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건설장에 도착하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건설자들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흠모의 정을 담아 탁월한 선군령도로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는 어버이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새해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건설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새해의 전투에 돌입하여 로력적위훈을 떨치고있는 그들을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희천1호발전소 룡림연체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지난해 9월 건설장에 찾아오시여 주신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열의를



김정일동지께서는 룡림연체 건설을 앞당겨 끝내겠다는 불같은 맹세를 들으시고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머지않아 희천1호발전소의 거대한 연체가 하늘높이 솟아오르고 대인공호수가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힘을 합쳐 승리의 그날을 기어 이 앞당겨오자고 간곡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희천2호발전소 연체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공사장에 달려온 조선인민경비대 군인건설자들은 전투작전을 면밀히 세우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림으로써 연체쌓기에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였다.

지금 희천2호발전소 연체는 군인건설자들의 충성심에 떠받들리어 분초를 다투며 하늘높이 솟구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연체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추진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거창하게 솟아오르는 연체를 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 애국의 일념을 안고 맹렬한 돌격전을 벌려 연체건설력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한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친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자랑찬 부대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룡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한 부대군인들의 자랑찬 위훈은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의 창조자들인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발전소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종전같으면 십년이상 걸려야 할 방대한 대규모발전소건설을 불과 몇해사이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혁명적군인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을 높이 발휘하여 새로운 진군속도, 선군조선의 속도를 창조하고있는 희천발전소의 전제 건설자들에게 총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고 그들에게 특별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대, 영웅적인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무적의 군대와 인민을 가지고있기에 우리는 희천발전

소건설과 같은 대자연개조사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장에 흐르는 분과 초가 그대로 비약과 혁신이고 이 열정의 도가니속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고, 이것이 바로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노도쳐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기상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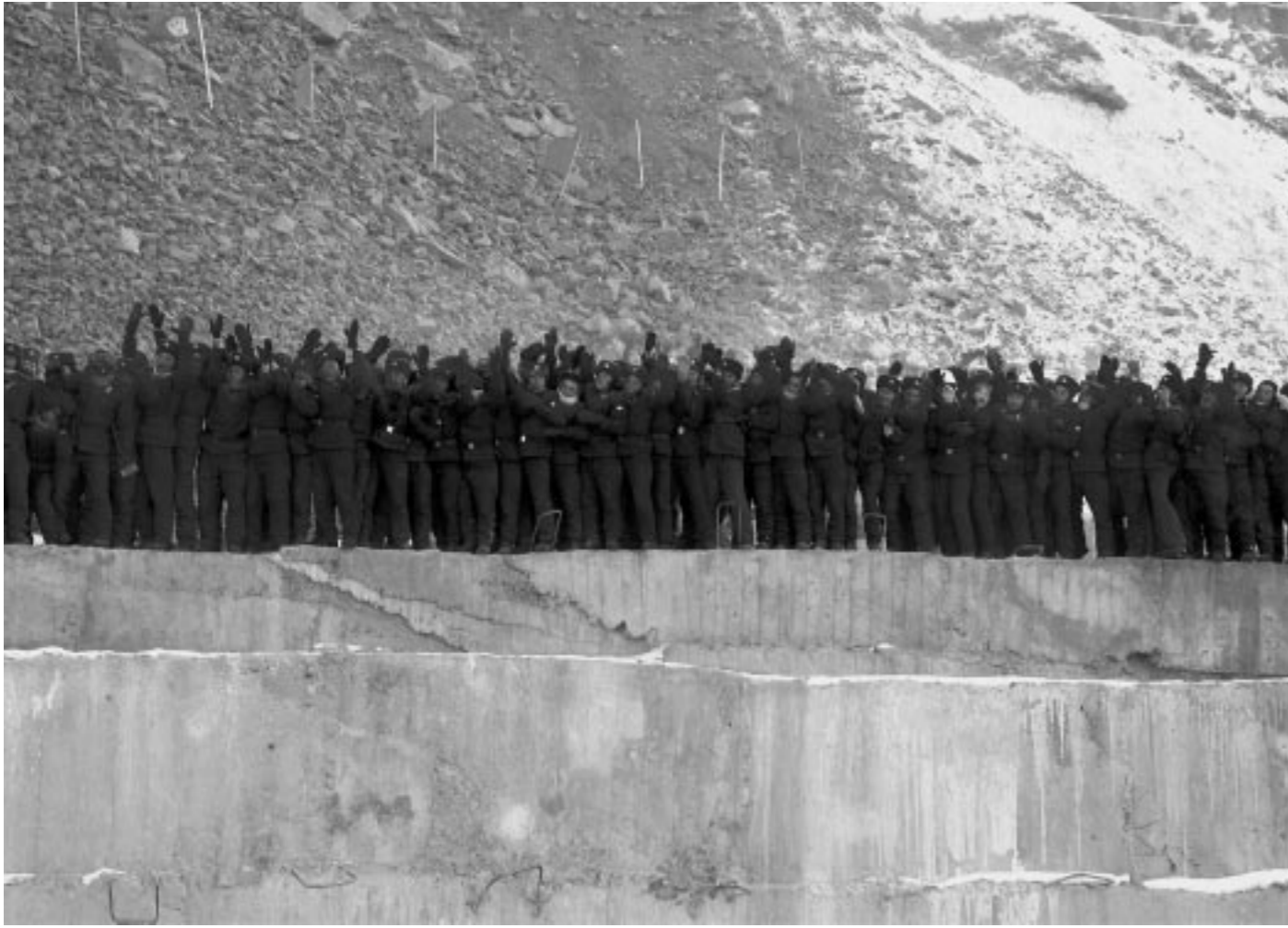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선자적인 과업인 동시에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급격히 장성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존발전소들의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출력이 큰 새로운 발전소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규모의 희천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시였다.

3 면으로 계속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2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대한 희천발전소 건설공사를 2~3년안에 끝낸다는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겨운 파업이지만 군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고 위력한 자립적공업토대가 있는 한 능히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2012년전으로 발전소 건설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일대 진공전을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을 제기일내에 끝낼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전국이

달라붙어 물심량면의 지원을 주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련관된 모든 단위들에서 필요한 건설자재와 기계, 설비들을 제때에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사속도를 계획대로 보장하자면 건설지휘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소건설련합지휘부와 발전소건설현장지휘부에서 전투작전을 치밀히 세우고 공사전반에 대한 장악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는 후대

들에게 물려줄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므로 최상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건설속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숙식조건을 비롯한 생활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사에 참가한 군인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 높여 발휘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동같이 내달림으로써 영웅조선의 혁명적기상을 다시금 만방에 높이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수많은 건설기재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또다시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땅우에 룡성번영의 찬란한 새 아침이 밝아오고있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승리자의 긍지와 전투적기백에 넘쳐있으며 온 나라에는 전례없는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떨쳐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승리의 해, 력사의 해로 빛내이자고 말씀하시였다.

희천발전소의 전체 건설자들은 새해정초에 눈덮인 험한 령들을 넘으시며 자기들의 일터에 친히 찾아오시여 따뜻한 고무격려해주시고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아버지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파업을 빛나게 판철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히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